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3월 3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26장 19절-23절

설교제목 : “증언하는 것은”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복음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9절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불가항력적인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바울을 자신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결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롬8:9)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자신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행2:17-18)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사역을 위해 임재하시다가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는 현상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말세에는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비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비전, 예수님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비전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참고 행1:8)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자아중심적인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자아중심적인 삶을 방식을 탈피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20절) 바울은 예수님을 부르심을 따라 먼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란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란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는 것이라 것입니다.(23절)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

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숙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만난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성령이 얼마나 속에서 탄식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정말 관심있는 곳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진심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따라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댓가를 치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써야 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결코 빛이 어두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에서 ‘도우심’으로 번역된 ‘에피쿠리아’는 ‘동맹자’, ‘조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동맹자요 조력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위협과 박해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도우십니다. 497장의 2절 가사를 보면,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라고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쁨의 삶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성령이 내주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 2)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 3)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각 구역별로 대신자를 작성하시고, 대신자를 위한 전도계획을 세워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